

KOR / ENG



KC GreenHoldings



# KC Newsletter

2010년 1월 11일 제5호

<http://news.kc-cottrell.com/10JAN>

## Contents

## 신년사

신년사

관계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타 소식

###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며... Happy New Year 201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 아침이 많은 세설과 함께 밝았습니다. 2010년 경인년은, 새로운 밀레니엄의 첫 10년(2000-2009)을 마감하고 맞는, 세 천 년의 두 번째 10년을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이 뜻 깊은 새해 아침에, 올해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KC코트렐과 관계사 임직원 가정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새해 아침에 안팎과 함께,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서울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도 폭설과 이상 한파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대에 따르면, 이는 역설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두 번째 10년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라는 이슈가 전 세계적 관심으로 본격적으로 떠오르며,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과 함께 세계의 에너지, 산업, 그리고 경제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녹색 성장’과 ‘녹색 경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KC코트렐과 관계사들은, 새로운 변화를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회사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2010년 1월 1일부로 ‘KC그린홀딩스’를 지주 회사로 하는 새로운 경영 체제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KC코트렐에 혼재되어 있던 환경EPC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사업과 환경 관계사 사업관리 부문을 분리하여, 모든 환경 관계사 사업을 관장하는 ‘KC그린홀딩스’를 지주회사로 하여, 환경EPC 그룹, 환경서비스 그룹, 신재생에너지 그룹, 그리고 환경관련 제조 그룹의 4개의 사업군으로 나눔으로써.....

&lt;대표이사 이택영&gt;

&lt;경제정책에도

&lt;에너지, 산업, 그리고

&lt;환경정책에도

&lt;환경EPC (engineering,

&lt;procurement &amp; construction)

&lt;사업과 환경 관계사

&lt;사업관리 부문을

&lt;분리하여, 모든

&lt;환경 관계사

&lt;사업을 관장하는

&lt;‘KC그린홀딩스’를

&lt;지주회사로 하여,

&lt;환경EPC 그룹,

&lt;환경서비스 그룹,

&lt;신재생에너지

&lt;그룹, 그리고

&lt;환경관련 제조

&lt;그룹의 4개의

&lt;사업군으로

&lt;나눔으로써.....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 우리만의 “성공유전자” 로 Global Leading Company로.

경인년(庚寅年) 새해 아침, “경술국치(庚戌國恥) 100년 만에 대한민국 ‘IT 조선 파워’ 일본 주월”이라는 신문기사를 보고 새로운 감회를 느꼈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 과정은 ‘기어간 근대화, 달려온 산업화, 날아가는 정보화’로 축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대화에 뒤져 일본 식민지로 전락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열심히 일본을 쫓아갔고, 정보화 시대에는 일본을 앞서 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루카스는 한국경제의 발전상을 ‘기적의 창출 (Making a Miracle)’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아마도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이 수백년에 걸쳐 달성한 경제적 성과를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50년 만에 축지법을 쓰듯 압축적으로 이뤄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급성장한 원동력은 뭘까요? 의욕 넘치는 기업가정신, 용기와 인내심을 지닌 근로자들, 수출 주도형 산업정책 그리고 그 위에 우리만의 성공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곧 우리 KC코트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10년 1월 1일을 기하여 우리 KC Network은 “KC Green Holdings”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관계회사의 규모 면에서만 보면 거대 기업군( )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2%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우리는 그 2%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는 곧 지금까지의 성공유전자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lt;기사 전문보기&gt;



&lt;대표이사 이택영&gt;

&lt;경제정책에도

&lt;에너지, 산업, 그리고

&lt;환경정책에도

&lt;환경EPC (engineering,

&lt;procurement &amp; construction)

&lt;사업과 환경 관계사

&lt;사업관리 부문을

&lt;분리하여, 모든

&lt;환경 관계사

&lt;사업을 관장하는

&lt;‘KC그린홀딩스’를

&lt;지주회사로 하여,

&lt;환경EPC 그룹,

&lt;환경서비스 그룹,

&lt;신재생에너지

&lt;그룹, 그리고

&lt;환경관련 제조

&lt;그룹의 4개의

&lt;사업군으로

&lt;나눔으로써.....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



&lt;김사 김종열&gt;



KOR / ENG



KC GreenHoldings



# KC Newsletter

2010년 1월 11일 제5호

<http://news.kc-cottrell.com/10JAN>

## Contents

신년사

관계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타 소식

## KC네트워크 소식

### ■ KC코트렐(주)

#### 포스코 우수공급자 선정 신년회 소식

지난 1월 8일 광양 백운대에서 포스코 주체의 “우수공급자 신년 간담회”에 KC코트렐이 우수공급사로 선정되어 참석하였습니다. 포스코 COO 여남석 부회장 주체의 이번 신년회에는 59개사 63명 (자재구매 32개사, 설비/공사 27개사)의 .... [<기사 전문보기>](#)

#### 제주내연2호기 준공행사

지난해 11월18일 한국중부발전 제주와력발전소에서 “제주내연 2호기 준공행사”에 KC코트렐이 전기집진기 및 탈황설비 우수 기자재 공급사로 선정되어 참석하였습니다. 제주내연2호기는 설비용량 40MW의 저속 디젤엔진으로, 총공사비는 897억원이 투입됐으며, 연간 280GWh의 전력을 생산. [<기사 전문보기>](#)

#### 보령와력6호기 최종 축매재생 수주

2009년 10월 중부발전에서 보령와력 6호기 탈질 촉매 132모듈 축매 재생 입찰을 국내 최조로 공시하였으며 KC코트렐(주)에서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하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15일 계약을 하고 촉매 탈착, 축매재생, 축매장착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재생한 촉매에 대한 성능평가는 현장성능검사와 ..... [<기사 전문보기>](#)

### ■ 안성유리공업(주)

#### 안성유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인벤토리

최근 녹색경영,녹색성장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안성유리 기술연구소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주)CDM4U와 공동작업으로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 및 사업장 에너지저감 잠재 요소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 [<기사 전문보기>](#)

### ■ KC삼양정수(주)

#### KC삼양정수, 영어 회사소개 발표 경진대회 개최

지난 2009년 12월 24일 해외 홍보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하여 영어 회사소개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지원자 8명을 비롯하여 본사 임직원 약 4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진행 방식은 Power Point로 작성한 회사소개 자료를 8명의 발표자가 릴레이 방식으로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사 전문보기>](#)

### ■ Lodge Cottrell India

#### Lodge Cottrell India의 인도 첫 수주!

Shriram EPC.,Ltd로부터 2009년 12월 16일 구 INR45,000,000 (한화 11억원대-US\$988,500) 규모 타르습식집진기 4대의 제작, 납품 공사의 구매의향서 (Letter of Intent) 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식구매발주서를 접수하는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Lodge Cottrell India의 [<기사 전문보기>](#)





KOR / ENG



KC GreenHoldings



# KC Newsletter

2010년 1월 11일 제5호

http://news.kc-cottrell.com/10JAN

## Contents

신년사

관계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타 소식

## 고객사 동향

### ■ 제철

#### “현대제철 5일 일관제철소 제1고로 화입”

당진지역에 연산 800만톤 규모(400만톤 고로 2기)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있는 현대제철이 1고로에 첫 불을 당기는 화입(火入)식을 갖고 한국 경제에 희망의 불꽃을 피웠다.

현대제철은 1월 5일 당진 일관제철소 고로공장에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고로 엔지니어링을 주관한 폴워스(Paul Wurth)사 마크 솔비(Marc SOLVI) 사장 등 내외빈과 임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제1고로 화입식’ 행사를 갖고 성공적인 고로의 가동을 대내외에 알렸다 <기사 전문보기>



### ■ 포스코특수강

#### — 포스코건설, 창원공장 신제강공장 EPC 공급계약”

포스코특수강(사장 성연욱)은 11월 25일 포스코 건설(사장 정동화)과 함께 2350억원 규모의 신제강공장 신설사업 EPC 공급계약에 관한 조인식을 가졌다.

포스코특수강은 신제강공장 설립으로 420X530mm 대단면 bloom(Bloom) 생산은 물론 압연공장 압리화와 연계해 최대 350mm의 대구경 봉강생산이 가능해져 제품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산 43만톤 규모의 신제강공장은 2010년 6월 착공해 2012년 2월 준공예정이며, 60톤 규모의 전기로와 레이블 퍼니스(Ladle Furnace), VOD, 대단면 bloom 수직연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공장에는 전기로 용강 교반장치 등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설비가 도입될 예정으로 포스코 패밀리 차원의 저탄소 녹색 성장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제강·연주설비 등의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기반으로 신제강공장의 설비공급을 비롯해 엔지니어링·시공 등 전 부문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포스코신문

### ■ 기 타

#### “S-Oil 화재와 싸우는 ‘소방영웅’ 들 후원”

주유소에 가면 언제나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적혀 있다. ‘화기염금.’ 에스-오일(S-OIL)이 화재 진압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은 소방관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소방영웅 시상식’을 매년 개최하는 것은 정유업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기사 전문보기>



#### “대기업 38곳 온실가스 480만t 줄인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38개 대기업들이 앞으로 3년 동안 에너지 사용량을 연평균 1.0~4.9% 줄이기로 했다. 지에스(GS)칼텍스와 현대제철 등 38개 대기업은 18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에너지 사용을 한 애 평균 1.0~4.9%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엔 처음으로 시행된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기업이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쓰겠다는 목표를 정부와 협의해 설정하고, 정부는 인센티브나 벌칙 등의 수단을 통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기사 전문보기>

3년간 입찰할 에너지절감 목표(2010~2012년)

기업	2010년	2011년	2012년	총합
정유	4	4	1.3	33만9000
석유화학	10	13	1.5	29만2000
철강	5	5	1.5	19만1000
전자	5	10	1.2	10만9000
화학	4	5	0.5	34만3000
제조	1	1	1.5	4000
기타	1	1	2.0	8000
자동차	1	1	1.0	1만5000
항공	1	1	2.0	7000
식품	1	1	1.7	2000
합계	5	5	0.2	22만9000
전체	38	47	1.0	150만9000

\*100만톤(에너지) 기준. 100만톤은 100만톤에 해당한다.

KOR / ENG



KC GreenHoldings



# KC Newsletter

2010년 1월 11일 제5호

<http://news.kc-cottrell.com/10JAN>

## Contents

신년사

관계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타 소식

## 경제동향

### 주식시장 동향

“홀짝 홀짝... KOSPI지수 2000년 이후 짝수 해는 부진, 2010년은??? ”

2000년부터 짝수 해에는 KOSPI지수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시장에서는 짝수 해 징크스라 불린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12월 뉴스레터에서 한화증권에서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편”에 서는 것, 즉 짝수 해마다 반복해온 어노멀리현상을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기본 시각은 소수임을 밝혔었다.

하지만 국내 각 증권사에서 발표한 2010년

1월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고 소수가 소수가 아닌 다수임을 알 수 있다. 주식시장의 주가는 각 회사의 펀드멘탈에 기초하여 움직이고 있다고들 하지만 심리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에 그들의 주장이 강한편은 아니다. 이번 모에서는 교보증권의 1월 전망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사 전문보기>



### 환율시장 동향

【환율전망】 “1월중 달러-원, 1.150원선 붕괴도 가능”

외환달러들은 오는 1월 중 달러-원 환율이 경기 회복과 펀드멘탈 호조 영향으로 1.150원선 아래까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연초 국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수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이는 점도 달러화의 하락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연초 서울환시는 수급 측면에서 결제 수요가 네고에 비해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달러화의 가파른 하락을 예상하기 어렵다. 연합연포맥스가 31일 국내 외국환은행과 선물사 10곳을 대상으로 1월 중 달러와폴(POLL)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달러들은 환율이 경상목자나 증시회복 등 펀드멘탈 요인에 따라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았지만, 결제 수요와 외환 당국의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으로 하락 속도는 매우 더딜 것으로 분석했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와 기존 금리인상도 변수로 꼽았다.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으로 금리차로 투자된 국내 달러 캐리 자금이 이탈 경우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 전문보기>

### 원자재 시장동향

“[열연] 열연시장, ‘가격세우기’에 속속 나선다.

[냉연] 중국 냉연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포스코, 현대제철 열연스틸서비스센터(SSC)를 비롯한 유통업체들이 시장 가격 세우기에 속속 나서고 있다. 시장에 따르면 포스코, 현대제철, 동부제철 등 국산 열연강판 유통 가격은 톤당 71~73만원대에 있다. 국내 메이커의 공급가격이 68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바닥’이라는 인식은 이미 시장에 팽배해 있다.

열연 유통 재고도 11월말 기준으로 약 19만 1,000톤이다. (지난해 11월 말 재고: 34만 2,000톤) 업계 관계자는 “열연 재고가 많지 않고, 가격은 이미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시장 가격 세우기에 속속 나서고 있다”며 “가격 반등은 수요회복이 관건이지만, 중국의 가격이 상승세에 있고, 철스크랩 가격이 오르면서 현대제철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보기>





KOR / ENG



KC GreenHoldings



# KC Newsletter

2010년 1월 11일 제5호

<http://news.kc-cottrell.com/10JAN>

## Contents



신년사

관계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타 소식

### UNIDO General Conference에 참가하고 나서

지난 12월 7~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유엔공업개발기구) 본부에서 2009년 연차총회 행사의 하나로 개최된 "Green Industry for Global Recovery and Growth"에 참석하였습니다.

"Green Industry~" 행사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예범으로 Green Industry에 주목하고, Green Industry가 다가올 미래의 세계 경제, 특히 아시아·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Conference에 온 참석자들은 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여러나라의 정부 대표들로, 어떻게 Green Industry가 자국의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저가 직접 참석한 행사는 둘째 날 저녁 아시아 Green Industry의 전망을 논의하는 패널토론으로, 초청받은 다섯 명의 패널토론자는 저 외에, Philips India CEO, 말레이시아 산업부장관, 중국의 태양전지회사인 Trina Solar의 CEO 등 대부분이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의 경영자들이었습니다.



(사진: 비엔나 UNIDO 본부)



(사진: Asia Green Industry 패널 토론)

저는 저의 KC Cottrell이 성장해온 과정, 특히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최근 10년 간의 성장과정, Green Industry의 확대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 좋은 사례라고 보고,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별첨 Presentation 자료). 특히 지난해 FMM 시간에 사장님께서 앞으로 전개될 Green Industry의 Technology Map (별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Technology Map에 저의 회사와 우리 계열, 그리고 30억 아시아의 미래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전문보기>

### KC그린홀딩스(주)와 KC코트렐(주) 안성공장의 설경

